

제 5 호

1988년 4월 22일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노무현후보 선거대책본부
 전화 : 47-3711~2 · 3735~6
 <선거후원 자원봉사대>
 전화 : 23-5511 · 47-4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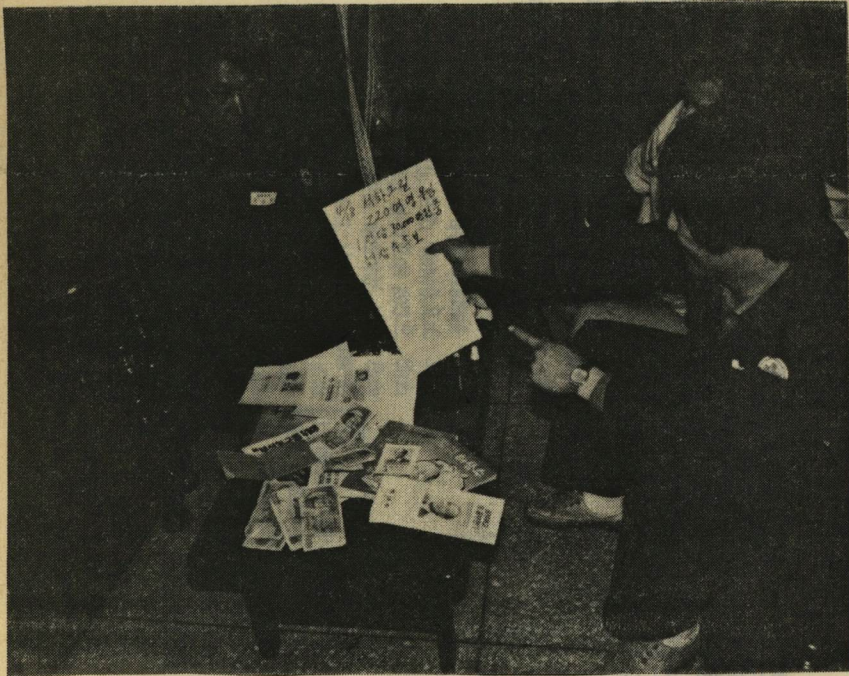
사람사는 세상



보라! 이 부정선거의 현장을

- 허삼수는 더이상 국민의 세금에 손대지 말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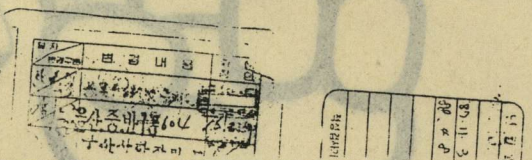
민정당의 부정선거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전통야당 도시인 부산, 그중에서도 독재정권의 하수인과 민주세력의 선봉장이 한판 격전을 벌이는 정치 일번지 동구에서 날이면 날마다 돈을 가마니째 퍼붓고 있는 허삼수의 모든 행동이 동구주민들에 의해 속속 고발되고 있다. 이 돈이 다 어디에서 난 것인가?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어찌서 몇십억원의 국민세금이 허삼수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래의 내용은 동구주민들이 직접 고발한 허삼수의 부정선거사례이다.



돈과 술에 희롱당하는 주권

- 4월 19일 오전, 수정4동 동국주택에서 허삼수의 여동생이 사람을 30여명 모아놓고 개인당 1만원씩 돌리며 허삼수 지지 강요.
- 4월 5일 오후 3시 30분, 허삼수의 부인이 수정아파트에 와서 통장을 위시해 반원들에게 3만원씩 돈을 돌림.
- 4월 15일 오후 1시, 범일1동에서 메모꽂이가 달린 탁상시계를 나눠 주고 뉴 라이프 호텔에서 목회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뷔페식사 대접한후 1만원씩 지급.
- 4월 16일 허삼수 고향사람이라는 남자가 수정4, 5 동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갈비와 식사등 향응을 제공하며 허삼수 지지 종용.
- 4월 18일 오후 7시부터 부산일보 10층 카페에서 성결교회 교인을 상대로 호화판 잔치를 베풀고 금품 제공.
- 4월 20일 12시 40분, 허삼수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성대하게 음식대접을 하고 교회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서는 사람들을 20명씩만 모아주면 일당 2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
- 4월 16일 오후 5~7시, 수정동 소나무집에 허삼수가 한일택시기사 50명을 불러 불고기와 술을 제공하며 지지 종용.
- 4월 19일 10시 30분경 초량6동에서 초대권을 배부하며 모이라는 장소에 돈 1만5천원씩을 뿌림.
- 4월 20일 6시에 120만원을 들여 만든 상수도, 공원벤취를 설치해주고 돼지머리, 술을 놓고 고사지냄.
- 4월 21일 진고개 식당에서 호남향우회 회원을 불러 모아 접대후 금품 제공하고 태종회관에서 텍사스촌 위안부들 모아 놓고 금품·향응 제공.

그 바깥은
 저는 오늘 부산에서 지부장 조인환이라는
 사람이 범일동에서 우리 하고 있는 석화그릴 7층
 잔식부에 갔으나 허삼수의 연정당 후보의 연임을
 위한 식사와 돈, 음금 30000원이 음으로 흥취있
 진내 받았습니다. 이 돈이 허삼수 씨의 정당의 많은
 사람들의 모여 있는 음으로 흥취있거상에 바
 뎠습니다.



▲ 4월 19일 오후 6시, 허삼수는 석화그릴 7층에 어용택시노조지부장 조인환의 이름으로 택시 기사들을 데려다 놓고 3만원이 든 돈봉투를 나눠주며 지지를 종용, 택시기사들을 분노케 했다. 위의 사진은 이런 사실을 알려온 두명의 택시기사가 제시한 증거물이며 부정선거 고발장이다.

No. 2-108		診 療 券	
姓名 :	住民登錄番號 :		
本 診 療 券 을 所 持 한 분 에 게 3 日 間 無 料 診 療 하 여 드 립 니 다			
治 療 內 用 : 貼 藥 3 日 分 (6 貼 內 外) 鍼 灸 治 療 3 日 間			
有 効 期 間 : 1988 年 4 月 30 日 까 지 (※ 단 동 구 에 거 주 한 분 에 한 한)			
指 定 場 所 : 노 인 韓 醫 院			
住 所 : 범 일 동 230-28		TEL : 67-2100	
釜 山 市 東 區 韓 醫 師 會		TEL : 66-9577	

▲ 4월 20일, 허삼수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권을 돌리면서 첨부된 진료권을 가지고 '보인한의원'에 가면 보약을 받을 수 있다며 돌린 진료권. (제보자, 범일2동에 거주하는 65세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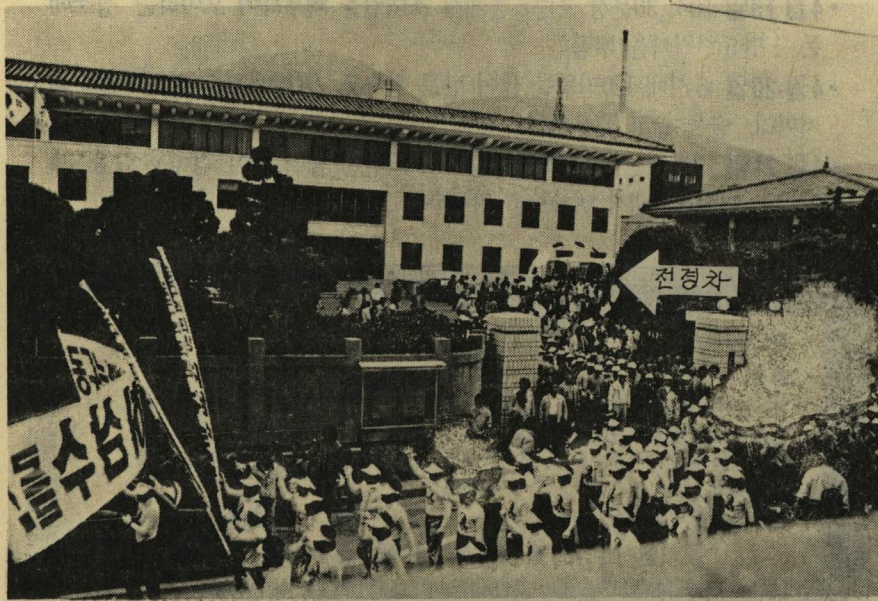
보라! 이 현장을

공무원이 허삼수의 선거운동인

- 4월 16일 저녁 범6동에서 반장이 돈1만원이 든 봉투 돌림
- 4월 17일 저녁 범5동에서 통·반장을 통해 돈 만원이 든 봉투 돌림
- 4월 18일 오후 8시30분, 범2동16통 통장이 비누1세트를 돌리며 허삼수 지지 강요
- 16·17일의 두차례 합동연설이 허삼수의 패배로 끝나자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림 합동연설회때도 공무원을 동원하여 민정당 허삼수 연설 후 모두 퇴장하라고 지시하였음. 그래서 억지로 퇴장해야 했던 이들 공무원들은 잠시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유세장에 들어와 다른 후보의 연설을 들었음. 그리고 두번의 합동연설이 끝나자 수정5동 동장이 통·반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돈 3만원씩을 돌리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람들을 포섭하라고 하였음. (제보자: 좌천동거주 공무원)

허삼수의 치졸한 흑색선전 방법

- 4월 16일 오후 5시, 좌천2동의 경우, 주민들을 몇명만 부곡은천관광을 시켜준 다음 이에 항의하는 동민들에게 야당이 한짓이라고 흑색 선전
- 4월 16일 오후 7시, 범6동에서 반장을 통해 1만원씩을 각 집마다 돌리면서 의도적으로 몇 집을 빠뜨리고는 민정당 사무실에 항의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야당이 한 짓이라고 흑색 선전
- 4월 16일 수정4동 수정아파트 5, 7, 8, 14호동의 노인들을 상대로 노무현 후보가 부모를 구타하는 사람이라고 유언비어 유포
- 4월 15일 금호예식장 회관에 400명 정도를 모이게 하여(노인 제외) 방명록을 적게한 후 동구주민들에게만 2만5천원씩 지급하여 택시를 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허삼수 욕하는 자 있으면 무조건 민정당 사무실로 신고하라고 교육
- 4월 19일 부터 산복도로 근처에 빈봉투를 돌려 민주당에서 했다면 흑색선전 전 또는 돈을 줬다가 도로 뺏으며 민주당 짓이라고 발뺌



지난 16일 유세에서 당황한 허삼수는 17일 유세에서는 전경까지 동원했다. (사진은 17일 부산지방국도관리국 안의 전경차와 차에서 내리는 유세청중 또는 폭력경찰)

그 밤내용
허삼수의 마이크의 음성은 선거운리위하나 고시 소리와 적외의 높은 음의 명령을 받은 유세장은 허삼수의 방해공작의 각성이 있음을 저해하 공부 심상한 다아는 사실이었다 노후는 이러한 음에 속지않고 더욱 강하게 공추인들에게 호소음 하여 주위의 여러사람 수인으로 간주 부탁드립니다

노후를 지지하는 많은 한공무원도 부탁드립니다 힘내서 생활하십시오

4월 16일, 17일 유세때 노무현 후보의 연설 과정에 선관위에서 설치한 유세용마이크가 꺼지거나 혹은 같은 주파수로 톤을 높여 양 스피커가 서로 소리를 상쇄 유권자들에게 노무현 후보의 유세내용을 못알아 듣게 했다.

위 내용은 동구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이 이것이 마이크 조작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고발해 온 내용이다.

여당의「公明선거」다짐 무색 국민은「金權」등 배격해야

이미 다하는 사실이지만 4 26총선을 앞둔 고조되고 있는 선거운동의 분위기는 이렇듯 한 발짝도 타락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비용의 과다와 선거운동의 타락은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타락은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타락은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타락은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비록 가진게 없어 남들처럼 평평 쓰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의 진실한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참신한 인물을 선택하는 현명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관위는 그릇된 풍조는 바로잡아야 할 일의 책무가 있는 것이다. 비록 가진게 없어 남들처럼 평평 쓰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의 진실한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참신한 인물을 선택하는 현명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